

LOCAL

2025년 5월 20일 화요일

나주, 에너지 자립형 전력계통 안정화 강화

담양, 생활자원회수센터 가동 자동화 선별 시스템 도입

담양군은 재활용 가능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준공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 관리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담양읍 삼만리 일원에 위치하며, 지상 1층, 연면적 1578㎡ 규모에 1일 10t의 재활용품을 처리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46억원(국비 14억원·도비 5억원·군비 27억원)이 투입됐다.

이번에 가동을 시작한 회수센터는 발리 스틱 선별기와 광학 선별기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있어 기존 수작업 위주의 재활용 분류 공정을 크게 개선했다.

자동화 선별을 거친 재활용품은 압축·계량 후 반출돼 작업 과정의 효율성과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센터 내에는 샤워시설, 탈의실, 휴게실 등을 갖춘 근로자 편의도 한층 강화됐다. 운영 인력은 기존 재활용 선별장 근무자 6명을 고용 승계하고, 주민을 우선 채용해 총 16명 규모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자동화 선별시설 도입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효율도 개선될 것이다”며 “근로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웅 기자 jnwnews@

화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7월까지 19세 이상 성인 대상

화순군은 7월 31일까지 표본 가구로 선정된 가구원 중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근거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강 통계산출과 지역 보건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을 위해 질병관리청·화순군·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한다.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 가구를 방문해 태블릿 PC 전자조사표를 이용한 1대 1 면접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항목은 건강행태(흡연, 음주, 안전의식, 신체활동, 식생활 등), 만성질환 이환(고혈압, 당뇨병 등), 사고·중독, 삶의 질 등 19개 영역 169개 문항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일렉트릭(주)·농협경제지주와 분산에너지 업무협약 윤병태 시장 “분산에너지 생태계 모델 확산 목표”

나주시가 호남권 전력 계통 안정화를 이끌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국가 분산에너지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목표에 따른 ICT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기반 전력공급 계획이 수립, 혁신산단 입주기업인 파이온 일렉트릭(주), 농협경제지주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난해 6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재생 에너지 기반 자립적 전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단의 에너지 자립을 향상, 지역사회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력을 강화한다.

이번 협약은 최근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송전계통 과하와 주파수 불안정 등 계통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기술적, 정책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핵심인 ‘그리드포밍 인버터’ 기술은 스스로 주파수와 전압을 형성(Forming)해 전력망을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차세대 기술로 블랙아웃 시 자체 재가동이 가능한 자립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기술이 구축되면 산업단지 단위에서도 대규모 계통으로부터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형 전력운영체계(지산지소형 에너지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어 계통 사고 시에도 독립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산업단지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도 지자체 입지를

협약 주요 내용은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협력’, ‘그리드포밍 기반 인버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핵심 설비 구축·운영’, ‘관련 인·허가, 제도 개선,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이런 협약은 최근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송전계통 과하와 주파수 불안정 등 계통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기술적, 정책적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핵심인 ‘그리드포밍 인버터’ 기술

은 스스로 주파수와 전압을 형성(Forming)해 전력망을 지원하거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차세대 기술로 블랙아웃 시 자체 재가동이 가능한 자립형 전력망 구축의 핵심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기술이 구축되면 산업단지 단위에서도 대규모 계통으로부터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자급자족형 전력운영체계(지산지소형 에너지시스템)를 구축할 수 있어 계통 사고 시에도 독립적으로 재가동이 가능한 복원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산업단지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도 지자체 입지를

다지고 추후 에너지 국가산단 등에 적용 가능한 표준 모델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단순한 기술 실증을 넘어 정부가 지향하는 분산에너지 생태계 조성의 실현 가능한 모델로 발전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특화지역 지정 시 관련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바탕으로 민간 중심의 분산에너지 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나주=조원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장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최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428억원(국비 포함)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장성, 살고·일하고·쉬고 싶은 농촌 만들기 성큼

2029년까지 농식품부와 활성화사업 추진

김한중 군수 “지역 활성화·균형발전 견인”

장성군이 살고·일하고·쉬고 싶은 농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최근 서울특별시 아모리스 역삼에서 428억원(국비 포함) 규모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김한중 장성군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촌협약’은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고 싶은 고장으로 만드는 ‘농촌공간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협약대상 시군에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전문가 자문과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협약을 맺었다.

정부와 군은 협약에 따라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9억원 등 총 428억원을 농촌공간계획 시행에 투입한다.

계획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장성읍, 삼계면), 기초생활거점정착사업(삼서·황룡·서삼·북이면) 등으로 구성됐다. 지역민 삶의 질을 높여 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문화·복지·체육 등 분야별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한다.

김한중 군수는 “이번 농촌협약이 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이다”며 “장성의 성장을 위한 절호의 기회인 만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곡성 도림사 오토 캠핑장리조트 새단장

곡성군은 곡성 도림사 입구에 있는 도림사 오토 캠핑장리조트의 새단장을 마치고 최근 새롭게 개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군은 노후된 카리반 25개를 매각하고 기차 형태의 외부와 내부는 편바나 무로 꾸민 색다른 카리반 5동과 실내에

화장실·샤워실을 갖춘 모든 것을 실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글램핑 10동을 4월까지 설치 완료했다.

또 지난해에는 캐빈하우스 14동을 모두 철거하고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춘 동물모양의 키즈펜션 10동을 설치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도림사 오토 캠핑장리조트는 바로 앞에 방석같이 넓게 펼쳐진 바위 사이로 동악산에서 시작한 맑은 물이 흐르는 도림사 계곡(전남도 기념물 제101호)이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고 가까운 곳에 천년고찰 도림사도 있어서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곳으로 평가받는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해남 산이정원, 31일까지 금작화 페스타

정서적 힐링 공간…함소화 등 희귀 봄꽃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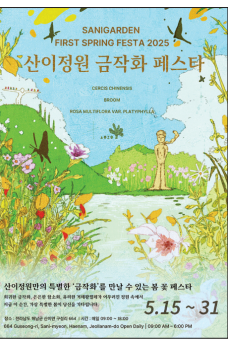
전남 최초 정원형 식물원 산이정원이 금작화가 만개하는 5월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금작화 페스타’를 개최한다.

금작화는 5월에 피는 밝은 노란색 꽃이다. ‘노란 참새가 무리지어 있는 듯 없는 듯 보인다’고 이름 붙여졌는데 산이정원의 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꽃이다.

산이정원 산책길을 따라 정원 곳곳에 만개하기 시작한 금작화 군락은 마치 황금빛 파도가 출렁이듯 장관을 이뤄 방문객들이 마치 동화 속 정원을 거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한다.

봄의 산이정원에는 금작화 외에도 보기 드문 희귀 봄꽃들이 상존해의 이목을 끈다. 바나나와 사과를 섞은 듯한 달콤한 향을 풍기는 ‘함소화(바나나수련)’, 일반 찔레꽃보다 꽃 크기가 크고 화려한 ‘거제왕찔레’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식물들은 식물 애호가들은 물론 가족 단위 관람객에게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산이정원은 단순히 꽃을 감상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정원 전체를 살아있는 전시관으로 만드는 체험형 자연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만큼 이번 봄 시즌에는 꽃 중심의 일회성 전시를 넘어 정원 속에서 희귀 식물을 온전히 경험하고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정원형 관광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산이정원 관계자는 “이번 5~6월 금작화 시즌은 산이정원의 진면목을 경험할 수 있는 봄의 절정기다”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희귀한 꽃들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정원 속에서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위로와 여유를 만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웅·해남=성정수 기자 sdw0918@

영광, 외부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

영광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외부평가 대응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와 전남도 등 대외기관에서 실시하는 68개 평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영광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각 실단과소장이 참석해 전

년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상 목표, 주요 평가지표, 추진상황 등을 보고했으며, 문제점과 대책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외부평가는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척도인 만큼, 모든 부서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98@gwangnam.co.kr

www.중앙미용학원.co.kr

취업, 창업, 자격증 합격률 1위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미용교육의 선두주자!! 52년 정통 명문 뷰티 전문아카데미”

▼ 고3 미용위탁교육 지금 접수중!
3월 ~ 12월 국가자격증 + 취업실전교육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주강료, 재료, 수당) 전액 국비지원

▼ 취업 성공패키지 훈련비·재료100% 무료(1유형 참여자)
·매일 참여 수당 및 취업성공시 수당 지원
·만 18세 이상 실업자 누구나 가능 (단, 위계형선인의 경우 만 15세 이상 가능)

18세이상
실업자·재직자 전과정 전액 국비

- 헤어미용국가자격증
- 피부미용국가자격증
- 네일아트국가자격증
- 메이크업국가자격증
- 이용사국가자격증
- 헤어실전취업(연구)
- 남성커트 숙성과정
- 피뮈트여성커트취업과정
- 네일아트연구취업과정
- 피부미용연구취업과정

현재접수중

- 주·야간 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미용사
- 취업·창업실전교육
- 미용·이용·기능장
- 인문계 고3예정자 미용100% 지원
- 다자이·승급·개업·미용실운영 고객실습교육

훈련비·재료·교육비

피뮈트포인트선진기술·남성커트숙성교육

선착순 모집 중

중앙미용직업전문학교 · 중앙미용학원

동구 금남로 232-4 (금남로 2가, 우리은행 옆)

미용·이용기능장 광주, 전남 지정 교육원
피뮈트포인트교육 / 한국최초 뽀뽀스쿨

접·수·문·의 062) 225-9888